

# 광주광역시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윤혜정 · 정은주<sup>1</sup>

신흥대학 치위생과 · <sup>1</sup>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색인 : 구강건강증진행위, 구강건강 행동요인, 일반학생, 치위생학생

## 1. 서론

현대 과학의 발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가하면서<sup>1)</sup> 건강유지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다.

구강건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sup>2)</sup>. 이러한 구강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구강 내의 질환이 발생하기 전의 건강한 구강상태에서 구강건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sup>3)</sup>, 개인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보전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능력은 아동기 때부터 학령기 및 중·고등학교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몸에 익혀지게 되고<sup>4)</sup>, 대학생 시절에 정착하게 된다. 2006년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8-24세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은 83%,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5.07개, 우식증에 이환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우식영구치지수는 0.75개, 우식증으로 치아가 빠져 버린 상실영구치지수는 0.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구강건강관리는 다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며 대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sup>4)</sup>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보고 하였고, 김과 이<sup>6)</sup>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구강건강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비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개별구강보건교육이 요구되고 있었다<sup>7)</sup>.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으나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들의 비교분석과 개인이 실행하는 구강건강행동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다른 여러 지역에서의 대학생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었으나 광주광역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치위생학생과 일반계열학생(이하 일반학생) 간의 구강건강 행동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요구되는 행동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2009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G대학에서 3년제 치위생과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선정)과 2년제 일반학생(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491부에서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8부를 제외한 473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2.2. 연구방법

구강건강의 행동적 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sup>4)</sup>와 이<sup>8)</sup>, 이와 조<sup>9)</sup>의 논문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자기

보고 방식의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은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7문항(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여부, 예방목적 치과방문여부, 하루 평균 3회 이상 잇솔질 여부, 잇솔질 시기)이었고, 구강건강증진행위는 5점 리커트척도(전혀 그렇지 않다/거의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다/항상 그렇다)를 이용한 총 8문항이었으나 각 문항은 관련 있는 주제로 묶어서 표현하였다(주기적인 검진: 주기적인 치면세마와 주기적인 치과검진 및 치료, 잇솔질: 식후 철저한 잇솔질과 올바른 잇솔질, 불소이용: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과 불소 함유 용액 사용, 식습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설탕 섭취 제한). 또한 본 연구의 구강건강증진행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95$  이었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 1) 계열(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의 행동적 요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특성은 t-test를 이용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 4)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 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치위생학생 0%, 일반학생 24.4%, 여자는 치위생학생 100%, 일반학생 75.6%로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연령구분에 있어서는 19세 이하에서 치위생학생 44.0%, 일반학생 35.7%, 20~21세는 치위생학생 51.2%, 일반학생 33.9%, 22세 이상은 치위생학생 4.8%, 일반학생 30.3%로 나타나 19세 이하와 20-21세에서는 치위생학생이, 22세 이상은 일반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3.2.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의 특성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의 세부 영역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여부에서 '예'에 답한 치위생학생 242명(96.0%), 일반학생 21명(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여부에서 '예'에 답한 치위생학생 171명(67.9%), 일반학생 92명(4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여부에서 '예'에 답한 치

위생학생 203명(80.6%), 일반학생 66명(29.9%)과 예방목적 치과방문 여부에 '예'에 응답한 치위생학생 220명(87.3%), 일반학생 102명(46.2%)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하루 평균 3회 이상 잇솔질 여부에서 '예'에 응답한 치위생학생 177명(70.2%), 일반학생 152명(6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p > 0.05$ ), 잇솔질 시기는 식사 후와 취침 전이 각각, 치위생학생 95.6%, 49.6%, 일반학생 88.2%, 37.6%로 나타났다.

#### 3.3.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특성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주기적인 검진은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에서 각각 주기적인 치면세마( $2.8 \pm 1.1$ ,  $2.7 \pm 1.1$ ), 주기적인 치과검진 및 치료( $2.7 \pm 1.1$ ,  $2.7 \pm 1.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잇솔질은 식후 철저한 잇솔질에서 치위생학생( $3.8 \pm 0.7$ )이 일반학생( $3.5 \pm 0.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올바른 잇솔질도 치위생학생( $4.1 \pm 0.7$ )이 일반학생( $3.6 \pm 0.9$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p < 0.001$ ). 불소이용은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에서 치위생학생( $3.5 \pm 1.0$ )이 일반학생( $3.2 \pm 1.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p < 0.001$ ), 불소 함유 용액 사용은 치위생학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특성	치위생학생	일반학생	p
성별	남자	0(0)	54(24.4)	0.000***
	여자	252(100)	167(75.6)	
연령	19세 이하	111(44.0)	79(35.7)	0.000***
	20~21세	129(51.2)	75(33.9)	
	22세 이상	12(4.8)	67(30.3)	
합계		252(100)	221(100)	

\*\*\* $p < 0.001$

표 2.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의 세부 영역별 특성

단위: 명 (%)

구분	특성	치위생학생	일반학생	p
구강보건교육	예	242(96.0)	21(9.5)	0.000***
	아니오	10(4.0)	200(90.5)	
1년 이내 구강검진	예	171(67.9)	92(41.6)	0.000***
	아니오	81(32.1)	129(58.4)	
구강위생 보조용품	예	203(80.6)	66(29.9)	0.000***
	아니오	49(19.4)	155(70.1)	
예방목적 치과방문	예	220(87.3)	102(46.2)	0.000***
	아니오	32(12.7)	119(53.8)	
3회 이상 잇솔질	예	177(70.2)	152(68.8)	0.403
	아니오	75(29.8)	69(31.2)	
잇솔질 시기*	식사 전	19(7.5)	28(12.7)	
	식사 후	241(95.6)	195(88.2)	
	간식 후	19(7.5)	26(11.8)	
	취침 전	125(49.6)	83(37.6)	
	기타(하고 싶을 때)	30(11.9)	30(13.6)	
	합계		252(100)	

\*다중응답 결과임. \*\*\*p&lt;0.001

표 3.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특성	치위생학생	일반학생	p
주기적인 검진	주기적인 치면세마	2.8±1.1	2.7±1.1	0.302
	주기적인 치과검진 및 치료	2.7±1.1	2.7±1.1	0.954
잇솔질	식후 철저한 잇솔질	3.8±0.7	3.5±0.8	0.004**
	올바른 잇솔질	4.1±0.7	3.6±0.9	0.000***
불소이용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	3.5±1.0	3.2±1.0	0.000***
	불소 함유 용액 사용	2.4±1.0	2.8±1.1	0.000***
식습관	충분한 영양 섭취	3.8±0.9	3.6±0.9	0.012*
	설탕 섭취 제한	2.6±1.0	2.8±1.0	0.023*

\*p&lt;0.05, \*\*p&lt;0.01, \*\*\*p&lt;0.001

생(2.4±1.0)보다 일반학생(2.8±1.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식습관은 충분한 영양 섭취에서 치위생학생(3.8±0.9)이 일반학생(3.6±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0.05), 설탕 섭취 제한은 치위생학

생(2.6±1.0)보다 일반학생 (2.8±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특성	주기적 검진	p	잇솔질	p	불소이용	p	식습관	p	구강건강 증진행위	p
계열	치위생학생	2.7±1.0	0.584	3.9±0.6	0.000***	3.0±0.8	0.861	3.2±0.7	0.944	3.2±0.5	0.045*
	일반학생	2.7±1.0		3.6±0.7		3.0±0.9		3.2±0.7		3.1±0.6	
성별	남자	2.8±1.0	0.781	3.4±0.9	0.001**	2.9±1.1	0.549	3.2±0.7	0.653	3.1±0.7	0.262
	여자	2.7±1.0		3.8±0.6		3.0±0.8		3.2±0.7		3.2±0.5	
연령	19세이하	2.5±1.0 <sup>a</sup>	0.000***	3.7±0.7 <sup>a</sup>	0.005**	2.9±0.9 <sup>a</sup>	0.019*	3.2±0.8	0.249	3.0±0.6 <sup>a</sup>	0.001**
	20~21세	2.8±1.0 <sup>b</sup>		3.9±0.6 <sup>b</sup>		3.1±0.8 <sup>b</sup>		3.2±0.7		3.2±0.5 <sup>b</sup>	
	22세 이상	3.0±0.9 <sup>b</sup>		3.6±0.7 <sup>a</sup>		3.1±1.0 <sup>b</sup>		3.3±0.7		3.3±0.6 <sup>b</sup>	

\*p<0.05, \*\*p<0.01, \*\*\*p<0.001

a,b: 사후검정결과, 같은 문자인 경우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α=0.05)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은 <표 4>와 같다.

계열에 따른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보면 치위생학생 3.2±0.5, 일반학생 3.1±0.6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잇솔질 영역에 있어서만 치위생학생 3.9±0.6이 일반학생 3.6±0.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슷하거나 치위생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는 남자 3.1±0.7, 여자 3.2±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잇솔질에서만 남자 3.4±0.9 보다 여자 3.8±0.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1). 또 주기적 검진에 있어서는 남자 2.8±1.0이 여자 2.7±1.0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의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 22세 이상 3.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21세 3.2±0.5, 19세 이하 3.0±0.6으로 나타나 세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세부 영역별로 주기적 검진에서는 22세 이상 3.0±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잇솔질에서는 20~21세 3.9±0.6이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불소 이용에서는 20~21세와 22세 이상의 평균은 동일하였고 19세 이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식습관에서는 22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3.5.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에 따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요인과 구강건강 행동요인을 더미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 6>과 같다.

치위생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표 5. 치위생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	B	SE B	$\beta$	t	p	
상수	1.707	.421		4.056	.000	
연령	.052	.021	.154	2.484	.014*	
구강보건교육	-.019	.153	-.008	-.127	.899	Adj. R <sup>2</sup> = 0.128
1년 이내 구강검진	.172	.065	.162	2.647	.009**	F = 7.119
구강위생 보조용품	.248	.081	.198	3.065	.002**	p = 0.000
예방목적 치과방문	.114	.092	.077	1.239	.217	
3회 이상 칫솔질	.094	.064	.086	1.463	.145	

\*p&lt;0.05, \*\*p&lt;0.01, \*\*\*p&lt;0.001

표 6. 일반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	B	SE B	$\beta$	t	p	
상수	2.874	.150		19.117	.000	
성별	-.034	.095	-.024	-.358	.721	
연령	.005	.006	.051	.787	.432	
구강보건교육	-.220	.140	-.105	-1.569	.118	Adj. R <sup>2</sup> = 0.099
1년 이내 구강검진	.285	.086	.229	3.318	.001**	F = 4.456
구강위생 보조용품	.266	.094	.198	2.822	.005**	p = 0.000
예방목적 치과방문	.036	.087	.029	.414	.680	
3회 이상 칫솔질	-.092	.088	-.070	-1.052	.294	

\*p&lt;0.05, \*\*p&lt;0.01, \*\*\*p&lt;0.001

은 12.8%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치위생학생은 연령이 증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 여부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9%를 보였다. 따라서 일반학생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고,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4.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구강보건영역에서의 질병예방행위인 구강건강행위는 대부분의 구강질환이 예방가능하고 질병행위와는 달리 행위자의 자발성이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여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

용여부, 예방목적 치과방문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 < 0.001$ ), 하루 평균 3회 이상 잇솔질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 박<sup>10</sup>의 연구에서도 치과계열과와 일반계열과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구강보조 위생용품 사용, 치과예방처치에서 치과계열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이<sup>4</sup>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최근 1년 이내 치과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박 등<sup>10</sup>은 구강보건교육경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치과방문에서 치위생전공자들이 일반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치위생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그런 정보를 통해 본인의 구강상태를 인지하여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도 받고 필요한 예방치치나 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김<sup>10</sup>의 구강보건교육관련 교양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여부 조사에서 비구강관련 계열과 구강관련계열에서 모두 필요성과 수강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하루 평균 3회 이상 잇솔질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치위생학생이나 일반학생 모두 잇솔질을 세 번 이상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식후 철저한 잇솔질( $p < 0.01$ ), 올바른 잇솔질( $p < 0.001$ ),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 $p < 0.001$ ), 충분한 영양 섭취( $p < 0.05$ )는 치위생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불소 함유 용액 사용( $P < 0.001$ ), 설탕 섭취 제한( $p < 0.05$ )은 일반학생이 치위생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sup>13</sup>

는 잇솔질 방법을 '위아래로 닦는다'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 후 잇솔질에 대한 필요성은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 박<sup>10</sup>은 식후 철저한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 충분한 영양섭취에서 치과계열과가 일반계열과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주기적인 스케일링도 치과계열과가 일반계열과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치위생학생이 일반학생보다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더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을 위하여 잇솔질이나 불소함유 세치제 등을 사용해야 함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일반학생에게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한 구강건강을 위한 정보제공과 이러한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는 계열과 연령에 따른 전체 구강건강증진 행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잇솔질 영역만 계열( $p < 0.001$ ), 성별( $p < 0.01$ ), 연령( $p < 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기적 검진은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특히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행동요인은 22세 이상에서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경험은 '아니오'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지만,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는 주기적 검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불소이용에서는 20-21세와 동일한 값을 나타냈으며, 식습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sup>4</sup>는 구강건강증진행위 중 잇솔질 영역은 성별과 연령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른 주기적 검진과 식습관에서는 23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했다. 특히 이렇게 본 연구의 22세 이상에서 주기적 검진에 높은 결과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직장에서의 주기적인 검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예측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야간과 주간학생 간의 분석과 직장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보완이 되리라 예상된다.

치위생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중 치위생학생은 연령이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일반학생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 여부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sup>4)</sup>는 외적통제위,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sup>8)</sup>는 구강건강행위(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구강보건교육, 최근 1년내 구강건강검진, 치과예방처치라고 밝혔다. 또한 장 등<sup>14)</sup>은 자기효능감, 행동적요인, 인지한 구강건강통제위가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치위생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년이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구강관련 지식축적과 필요성의 증가로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예측되며, 일반학생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을 받은 경우 본인에 맞는 구강 관련 정보를 취득하면서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권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실생활에서 적용하

고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관리 및 계속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치위생학생 보다 일반학생들의 구강건강행동요인 및 구강건강증진 행위가 낮음을 감안하여 일반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습관 확립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하여 교육의 장인 각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의 개설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학생들이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주광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G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대학생 전체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또 치위생학생은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에서 고려되지 못한 점과 일반학생이 치위생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낮은 점 또한 변수 선정시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변화, 구강검사를 통한 구강상태가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치위생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구강건강 행동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G대학에서 3년제 치위생과학생과 2년제 일반학생 47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건강 행동적 요인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여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여부, 구강위생 보조용



품 사용여부, 예방목적 치과방문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 < 0.001$ ), 하루 평균 3회 이상 잇솔질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

2.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식후 철저한 잇솔질( $p < 0.01$ ), 올바른 잇솔질( $p < 0.001$ ),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 $p < 0.001$ ), 충분한 영양 섭취( $p < 0.05$ )는 치위생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불소 함유 용액 사용( $P < 0.001$ ), 설탕 섭취 제한( $p < 0.05$ )은 일반학생이 치위생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는 연령( $p < 0.01$ )과 계열( $p < 0.05$ )에 따른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 < 0.05$ ),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치위생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 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연령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 여부,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 여부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권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며, 특히 일반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확립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하여 구강보건 교육에 관한 교양과목의 개설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백경신.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14(2):232-241.
2.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고소영. 근로자의 구강보건 인식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2):21-34.
3. 오윤배,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62-83.
4. 이선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과 그 영향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1):41-51.
5. 보건복지부.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II. 조사결과보고서. 서울:2007;51-70.
6. 김은미, 이향남. 치위생과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4;4(3):141-148.
7. 원상연, 신승철, 김선영. 대학신입생들의 구강상태인식도와 상대구강진료필요도에 관한 상관관계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3):491-503.
8. 이호연.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9. 이향남, 조민정. 광주·전남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건강 증진행위.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4;4(2):75-80.
10. 박영남. 치위생과와 일반계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2):129-141.
11. 박일순, 이경희, 윤혜정.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8;8(3):175-182.
12. 김영임. 일부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1):23-35.
13. 이민영, 유자혜. 일부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 행태 및 관리수준에 관한 비교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141-151.
14. 장윤정, 정진아, 전은숙. 전남지역 대학생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관련 요인.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4):387-402.

**Abstract**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health-related majors in Gwangju**

Hye-Jeong Youn · Eun-Ju Jung<sup>1</sup>

*Dep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sup>1</sup>*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Key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nonhealth-related majors, oral health behavior factor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havior factors to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health-related major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ir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ultimatel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college students and behavioral factors related to that.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ree-year-cours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wo-year-course nonhealth-related majors in G college located in the city of Gwangju.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for 11 days from September 9 to 19, 2009, and the answer sheets from 473 respondents were analyzed. To look for connections between their maj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t-test was utilized,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Besid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grasp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Results :** Among the subfactors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outdid the nonhealth-related majors in thorough post-meal toothbrushing( $p<0.01$ ), toothbrushing method( $p<0.001$ ), use of fluorine-containing dentifrice( $p<0.001$ ) and good nutrition( $p<0.05$ ). But the latte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former in use of fluorine-containing rinse( $p<0.001$ ) and limited sugar intake( $0<0.05$ ). Regarding

variable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age group, whether to get a dental checkup over the last year and whether to use oral hygiene supplies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o impact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Specifically, the age group(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 get a dental checkup over the last year(nonhealth-related majors) had a greater impact.

**Conclusions :** To promote the or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comprehensive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which covers the importance of dental checkup, recommendation for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etc. Specifically,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offered as one of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order for nonhealth-related majors to get into sound life habits and improve their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To make it happen, require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